KIA '공포의 외인들' 기대하라

KIA 타이거즈가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과 계약을 마무리하며 2025시즌 연패에 도전할 외국인 선수 구성을 완료했다. 왼쪽부터 네일, 올러, 위즈덤.

'통합우승 주역' 네일·150㎞대 광속구 투수 올러 '원투펀치'

'ML 88홈런' 위즈덤과 연봉 80만달러 등 100만달러 계약

KIA 타이거즈가 패트릭 위즈덤(Patrick Wisdom·사진)을 영입하면서 2025시즌 외국인 선수 구성을 끝냈다.

KIA는 26일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우투우타·33)과 계약금 20만 달러, 연봉 80만 달러 등 총액 100만 달러에 계약을 마무리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무리에타 출신의 패트릭 위즈덤은 신장 188㎝, 체중 99㎏의 체격을 지녔으며, 메이저리그에서 7시즌, 마이너리그(이하 트리플A)에서 7시즌을 뛰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455경기에 나와 통산 타율 0.209, 274안타 88홈런 207타점 192득점을 올렸다.

마이너리그에서는 439경기에 출전해 타율 0.253과 391안타 89홈런 277타점 248득점의 성적을 냈다.

올 시즌에는 시카고 컵스 소속으로 75경기에 나와 타율 0.171, 27안타 8홈런 23타점 16득점을 기록했고, 마이너리그에서는 9경기에서 11안타 3홈런 10타점 9득점 타율 0.407을 장식했다.

3년을 함께 한 소크라테스 브리토와 작별한 KIA는 위즈덤의 '한 방'을 주목하고 있다.

위즈덤은 메이저리그에서 2021~2023 세 시즌 연속 20홈런 이상을 기록한 장타력을 갖추고 있다. 장타력이 좋은 위즈덤은 평균 이상급의 주루 스피드와 준수한 송구 능력도 갖추었다.

또 1루와 3루는 물론 외야 수비까지 가능하면서 다양한 전력 활용이 가능하다.

KIA는 위즈덤과의 계약을 끝으로 2025시즌 연패에 도전할 외국인 선수 구성을 마무리했다.

'에이스' 제임스 네일을 붙잡은 KIA는 아담 올러(Adam Oller·우투우타·30)로 '외국인 원투펀치'를 구성했다.

네일은 올 시즌 KIA의 우승을 이끈 주역이다.

KBO리그 첫 시즌이었던 올해 26경기에 나온 네일은 149.1이닝을 소화하면서 12승을 책임졌다. 2.53의 평균자책점으로 이 부문 1위에 올랐고, 턱관절 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딛고 한국시리즈에서도 '에이스'의 면모를 보여줬다.

새로 영입한 우완 아담 올러는 신장 193㎝의 큰 키에서 내리꽂는 150㎞대의 빠른볼이 위력적이며, 각이 큰 변화구를 바탕으로 탈삼진 능력도 뛰어나다.

검증된 네일과 새 얼굴로 외국인 선수 구성을 마친 KIA는 2025시즌 연패를 위한 도전을 펼치게 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코치진 확정…김주찬·김민우 1군 합류

KIA 타이거즈가 2025 시즌 코칭스태프 보직을 확정했다.

1군은 이범호 감독을 중심으로 손승락 수석 코치와 함께 김주찬 QC(Quality Control) 코치가 가세해 '왕조 재건'에 나선다.

또 정재훈·이동걸 투수 코치, 홍세완·조승범 타격 코치, 조재영 작전 코치, 윤해진 주루 코치, 김민우 수비 코치, 타케시 베터리 코치로 1군이 구성된다.

퓨처스팀은 진갑용 감독을 필두로 이상화·이정호 투수 코치, 최희섭 타격 코치, 이현곤 작전, 주루 코치, 박기남 수비 코치, 이해창 배터리 코치가 역할을 맡는다.

잔류군은 김석연 총괄 코치와 서덕원 투수 코치, 박효일 수비 코치로 구성됐다.

KIA는 "각 파트별로 코칭스태프가 선수들을 잘 지도해준 덕분에 통합 우승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2025시즌도 변함없이 선수단을 잘 이끌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

날 막지마 26일(한국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체이스센터에서 열린 NBA 2024-2025시즌 정규리그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의 경기에서 로스앤젤레스 포워드 르브론 제임스(오른쪽)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포워드 앤드류 위긴스를 상대로 드리블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농구 올스타전 3점슛·덩크왕은 누구?

이정현·허웅 등 참가… '덩크왕' 국내·외국 부문 통합

2024-2025 KCC 프로농구 올스타전 3점슛 콘테스트와 덩크 콘테스트에 참가할 선수 명단이 공개됐다.

KBL은 26일 각 구단 추천을 통해 올스타전 각 콘테스트에 나설 선수 명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고의 슈터를 가리는 '3점슛 콘테스트'에는 총 17명이 참가한다.

지난 시즌 올스타전 3점슛 콘테스트 우승자 이근휘(KCC)를 비롯해 현재 3점슛 부문에서 상위권을 기록 중인 이정현(소노), 허웅(KCC), 유기상(LG) 등 실력자가 총출동한다.

여기에 올해 신인인 정성조(소노)가 도전장을 던졌다.

3점슛 콘테스트 예선 상위 4명이 결선에 진출하며, 지난 시즌과 동일하게 제한 시간 70초 이내에 다섯 개 구역과 딥쓰리 존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면 최종 우승자가 된다.

최고의 덩커를 선발하는 '덩크 콘테스트'는 국내 선수와 외국 선수 부문을 통합해 진행한다.

출전하는 총 10명의 선수 중 디온테 버튼(KCC)이 가장 눈에 띈다.

버튼은 2017-2018시즌 올스타전에서 윈드밀 덩크와 360도 회전 덩크 등 환상적인 묘기를 선보이며 우승을 차지했다.

이 밖에도 이번 시즌 신인 김보배(DB), 이근준(소노), 박정웅(정관장), 손준(한국가스공사), 이대균(현대모비스)도 도전장을 내민다.

2024-2025 KCC 프로농구 올스타전은 내년 1월 19일 부산사직체육관에서 열린다.

전희철 서울 SK 감독과 주장 유기상이 속한 크블몽 팀과, 조동현 울산 현대모비스 감독과 변준형(정관장)이 의기투합하는 공아지 팀이 맞붙는다. 티켓 예매 오픈 일정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